

마태복음 27:27 - 27:31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29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30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31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로마군인들이 사형당할 죄수들을 희롱하는 장난을 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중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과 같은 '왕' 놀이가 있는데, 죄수를 '왕'으로 세우고 신체적으로 여러 위해를 가하는 놀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며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니, 이 병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의 놀이에는 딱 맞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32-44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34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6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임의로 곁에 서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메게 합니다. 구레네는 Cyrene 으로 표기되는, 오늘날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북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로마 점령지역인데 유대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서있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마가 복음 15:21 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신약교회안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루포는 로마서 16 장 13 절에 나오는 바울과 친숙한 사이였던 루포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말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번역을 하면서 의미를 같이 적습니다. 그런데 'Place of Skull' 이라는 말을 한글로 옮기면서 '해골 곳' 으로 번역을 해서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갈보리 (Calvary - calvaria) 라는 말은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옵니다.
- 이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사형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포도주에 신경을 무디게 하는 성분을 넣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쓴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조롱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 35 절에서 38 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 가도록 놔두는 잔혹한 사형법이라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오래가면 2-3 일에 걸쳐서 죽게 되는데, 지쳐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서 질식사 하게 됩니다. 다리로 몸무게를 지탱하여 숨을 쉬게 되는데, 다리를 부러뜨려서 몸을 받치지 못하게 해서 일찍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45-66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무덤에 묻히시다

45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53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13).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끔찍한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아주 촘촘하게 짠 천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천입니다. 이 휘장이 찢겨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를 분리하고 있던 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없애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으로 작용합니다.
-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들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세명을 언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의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은 공의회 회원인데 (누가 23:50-51) 마태를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